

11/8(화) 욱기 묵상 50

욱기 39:1-3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욱기 38장부터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전반부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욱 38장 후반부에는 눈, 우박, 폭우, 비가 등장합니다. 욱 39장은 들나귀, 들소, 산 염소, 말, 매,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형식은 욱기 38장의 말씀과 같이 욱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은 산염소와 암사슴에 관해 말씀합니다(1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들 짐승이 언제 새끼를 치는지 그리고 그들의 새끼가 언제 독립을 하는지 이것은 인간에게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을 따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국 방송매체인 BBC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자연과 동식물의 신비가 어느 정도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지식은 일부입니다. 또 짐승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와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5-12절은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성은 ‘자유와 길들여지지 않음’입니다(5-6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9절,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나귀와 들소는 자기의 힘과 본능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러한 자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13-25절은 타조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타조에 대한 내용은 13-18절에 그리고 말에 대한 것은 19-25절에 묘사가 됩니다. 이 두 동물의 공통점은 ‘발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은 용기와 민첩성이 대단한 동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에서도 용맹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19절상,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넷째로, 26-30절은 매와 독수리에 관한 것입니다. 매는 구약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레 11:16; 신 14:15). 아마도 이들은 짐승의 썩은 고기와 시체를 먹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한 매와 독수리도 돌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오늘 본문인 욱기 39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특징은 모두가 인간의 손에 길들이거나 보호를 받는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야생 짐승이지만 모두가 제 각기 주어진 야생에서의 지혜와 용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욱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욱에게 창조물 중에 야생 짐승이 가진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욱에게 야생 질문에 관한 질문을 하시며 창조의 신비와 인간의 책임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인간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문화 명령을 떠오르게 합니다(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님께서 들짐승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통해 욥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마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욥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요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은 야생의 짐승들도 제 각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욥의 삶이 불공평하고 불의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이는 마치 들나귀, 들소, 산 염소, 말, 매, 독수리가 서로에게 각각 주어진 삶이 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남과 비교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모두에게 똑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지혜를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이 메마른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폭풍우와 같이 격동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창 28:15,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 중간선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부터 교회학교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은 C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컬럼비아에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과 5명의 선교위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이번 여행에 목적인 바를 주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수행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